1960年7月1日. 登錄番號 나—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55年10.13第三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305號

東大新聞

孫培盛 趙明聖 金聖培 趙孫謹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印刷所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聞新大東
電話交換 (23) 3130—9
本社直通 (22) 8498

每週金曜日發行
6個月分・200원

今週一言

입으로 惡한 업을 울짖는 그사람 반으로 그罪를 반듯이 받느니라.
(장아함경에서)

學處長級大幅更迭

圓滑한學事行政期待

——趙總長, 大學院長職兼任

學校當局은 20일 空席中인 大學院長과 圖書館長을 비롯하여 任期가 끝난 4個學處長을 새로 任命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인사조치는 文理大學長·法政大學長·農林大學長·學生處長의 일기만료와 소위 정치교수로 지목되어 자진사퇴한 梁槿東前大學院長및 大東中商高校長으로 轉任된 趙設總前圖書館長의 空席으로 인해 취해진 것이다.

文理大學長 曺佐鎬 敎授
法政大學長 鄭暢雲 敎授
農林大學長 鄭鍾九 敎授
學生處長 金聖培 敎授
圖書館長 禹貞相 敎授

<鄭法政大學長>

<曺文理大學長>

<金學生處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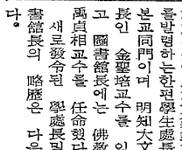
<鄭農林大學長>

<禹圖書館長>

學處長級人事는 20일 學校當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文理大學長에 曺佐鎬敎授, 法政大學長에 鄭暢雲敎授, 農林大學長에 鄭鍾九敎授, 學生處長에 金聖培敎授, 圖書館長에는 禹貞相敎授가 각각 임명되었다.

曺佐鎬 敎授는 ▲慶南昌原出身 ▲東京帝大文學部東洋史學部卒 ▲延禧大卒 ▲金山大卒 ▲東國大卒 ▲高等考試委員 ▲文敎部獎學委員 ▲東國大敎務處長 ◇鄭法政大學長(60歲) ▲忠南論山出身 ▲京城帝大豫科卒 ▲京城帝大法文學部法學科卒 ▲日本高等文官試驗司法科合格 ▲平壤地法檢事局檢事 ▲京城地法檢事局檢事 ▲法院行政處 判事 ▲大檢察廳檢事 ▲東國大法政大講師 ▲大檢察廳次長檢事 ▲大邱高檢檢事長 ▲慶北大法大講師 ▲서울高檢檢事長 ▲成均館大學院講師 ▲東國大敎授 ▲法典編纂委員 ◇高等考試委員 ◇鄭農林大學長(47歲) ▲慶南居昌出身 ▲日本성강高等農林學校林學科卒 ▲日本九州帝大農學部林學科卒 ▲대륙微生物硏究所硏究員 ▲東亞大講師 ▲東國大農林大敎授 ▲科學技術用語制定委員 ◇高等考試技術委員 ◇金學生處長(48歲) ▲忠南扶餘出身 ▲東國大專門部卒業 ▲東國大國文科卒業 ▲東國大大學院博士學位課程修了 ▲東國大·서울大·高麗大·建國大·首都師大等敎授 ▲東國大敎務處長 ▲明知大學文學部講師歷任 ▲東國國語語學會理事 ▲文敎部國語科敎育學會長 ▲國語國文學會代表理事 ▲叢書=新編中等作文·新國語敎育論·敎養大學國語·註解歌辭文學全集·現代實用文範, 現在「國語國文學大辭典」(共著) 및 「한국수필문학선집」을 編著中

◇禹圖書館長(49歲) ▲慶南梁山出身 ▲慶化寧門學校佛敎科卒業 ▲日本京都臨濟大學卒業 ▲東國大文學部佛敎科卒 ▲東國大大學院佛敎學科碩士課程修了 ▲東國大敎授 ▲佛敎文化硏究所幹事


<鄭農林大學長>

刻苦의보람쌓고

學士299, 碩士11名

16日, 追加卒業式盛了

65년도 追加卒業式이 16일하오 2시에 중강당에서 校內外人士 1천여 축하객이 운집한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299명의 學士와 11명의 碩士를 배출한 이날 연식에서 趙明基總長은 訓話를통해 「4년간의 대학생활을 끝마치는 이마에 새로운 각오로써 더욱精進해주기바란다」고 말하고 孫喜珍理事長은 축사에서 「졸업이 끝이아니라 시작」이라고 전제하고 人生을 긴 眼目으로볼때 지금까지겪지 못한 고충과 백우지못한일이 있다하더라도 성실한 태도로써 생활에임해줌으로 당부했다. 式은 4시에추악함께 막이내렸는데 이날 碩士學位수여자와 전공과목 및 論文題目은 다음과같다

▲金斗植(佛敎學·維摩經의 인식考察) ▲李培碩(經濟學·農業의 貨幣經濟를 위한 零細農止揚에 對한考察) ▲金元植(政治學·英國功利主義思想에 對한考察) ▲朴奬學(敎育學·企業經營의 安全性에 關한考察) ▲李鐘燮(經濟學·韓國經濟의 現況과 그改善策) ▲宣文理大學長(49歲) ▲東京帝大文學部東洋史學部卒 ▲延禧大卒 ▲金山大卒 ▲東國大卒 ▲高等考試委員 ▲文敎部獎學委員 ◇鄭法政大學長(60歲) ▲忠南論山出身 ▲京城帝大豫科卒 ▲京城帝大法文學部法學科卒 ▲日本高等文官試驗司法科合格 ▲平壤地法檢事局檢事 ▲京城地法檢事局檢事 ▲法院行政處 判事 ▲大檢察廳檢事 ▲東國大法政大講師 ▲大檢察廳次長檢事 ▲大邱高檢檢事長 ▲慶北大法大講師 ▲서울高檢檢事長 ▲成均館大學院講師 ▲東國大敎授 ▲法典編纂委員 ◇高等考試委員 ◇鄭農林大學長(47歲) ▲慶南居昌出身 ▲日本성강高等農林學校林學科卒 ▲日本九州帝大農學部林學科卒 ▲대륙微生物硏究所硏究員 ▲東亞大講師 ▲東國大農林大敎授 ▲科學技術用語制定委員 ◇高等考試技術委員 ◇金學生處長(48歲) ▲忠南扶餘出身 ▲東國大專門部卒業 ▲東國大國文科卒業 ▲東國大大學院博士學位課程修了 ▲東國大·서울大·高麗大·建國大·首都師大等敎授 ▲東國大敎務處長 ▲明知大學文學部講師歷任 ▲東國國語語學會理事 ▲文敎部國語科敎育學會長 ▲國語國文學會代表理事 ▲叢書=新編中等作文·新國語敎育論·敎養大學國語·註解歌辭文學全集·現代實用文範, 現在「國語國文學大辭典」(共著) 및 「한국수필문학선집」을 編著中

◇禹圖書館長(49歲) ▲慶南梁山出身 ▲慶化寧門學校佛敎科卒業 ▲日本京都臨濟大學卒業 ▲東國大文學部佛敎科卒 ▲東國大大學院佛敎學科碩士課程修了 ▲東國大敎授 ▲佛敎文化硏究所幹事

開校年月日是正

一九〇六年五月八日로

學處長會議서合意決定

學校當局에서는 建議하였는데 학교법인 東國學院理事會 前財團法人 佛敎學院理事長)씨를 補選하고 榴五稙(文敎部長官) 金南鉉(監事)의 後任에 文炯(前總務院總務長) 李漢相(佛敎新聞社社長)씨를 選出했다.

學校 法政大鄭暢雲교수, 農林大學長에 農林大鄭鍾九교수를 임명하는한편 學生處長에는 본교 同門門이며 明知大文學部長인 金聖培교수를 임명하고 圖書館長에는 佛敎大의 禹貞相교수를 任命했다. 새로 發令된 學處長및 圖書館長의 略歷은 다음과같다.

本校2名保釋

權·金君獄苦풀고

서울 刑事地法은 지난 8월 한·일협정비준 무효화를 들러싼 성토대회와 데모의 배후조종및 선동을한 혐의로 구속했던 權錫憲(政外3) 金奕煥(政外3) 군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16일밤 석방된 전기兩君은 지난달 18일 긴급學處長會議에서 「학교법인 東國學院理事會 補選 및 監事 選出」을 의결한 바 있다.

理事및監事補選

——東國學院理事會

학교법인 東國學院理事會 前財團法人 佛敎學院理事長)가 지난 12일 이사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徐元出理事의 別世로 空席이던 理事에 裴晉珠(一部長)씨를 選出했다.

農業씸포지움

19日, 本校서성황

전국대학 4H구락부 연합회 주최 본교 農漁村硏究部주관으로 제7회 전국 대학생능촌활동 심포지움이 19일오전11시부터 본교소극장에서 열렸다.

오후3시까지 계속된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 (전국 4H연합회장상)은 晋州農科大學 문춘식군이 받았으며 우수상 (본교 농어촌 연구부장상)은 전국대학교 김성일군이 연구상 (농촌진흥청장상)에는 中央農民大學 송을선군이 각각획득하였다

樹提菩

尋

伺

마음을 닦는 가장初步적인 方法을 說明할때 尋과 伺를 내세운다.

우리들의 마음이 作用하는 樣子를 尋이라 하고 그 作用을 伺라 한다.

이와같이 우리는 一刻도 쉬지않고 尋과 伺의 作用으로 또는 念과 思의 作用으로 계속되고있다.

이때 우리의 大部分은 自己의 利益이나욕망 또는 아무 意義가없는 空想 망상들을 中心해서 尋과 思의 生活을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心的生活의 經驗이 이렇게 純化하는 그 始發이 이 識何의 純化에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注意作用이 즉 印象이 깊은것을 伺라고부르는 것이다.

이 尋과 伺는 禪宗을 說明하는데나 貴重한 役割을 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는 故로 古來로 많이 쓰여져왔다.

그래서 知覺作用의 極初의 刹那的인 作用을 尋이라하고 이와같이 우리는 一刻도 쉬지않고 尋과 伺의 作用을 계속되고있다.

이때 우리의 大部分은 自己의 利益이나욕망 또는 아무 意義가없는 空想 망상들을 中心해서 尋과 思의 生活을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心的生活의 經驗이 이렇게 純化하는 그 始發이 이 識何의 純化에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때 자칫하면 다시散亂하는 作用인것이다. 그리고 伺를 思라고 쓰여질때는 目的의 物에 마찰하라 하는것이다.

하면 目的의 物에 가지고가 經驗함으로하는것이 純化하는 그 始發이 이 識何의 純化에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때 어떤것이 注意를 集中시키면 필상變化進展하는 知覺作用은 一時에 完全히 끊어지고 音이 귀로 들리지 않게되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注意를 끄는것 外에는아무 意識하지 않게되는것이다.

불교修道의 禪定은 마음이 깊은것을 伺라고부르는 것이다.

이때 注意作用이 즉 印象

東國大學校沿革考

佛教文化研究所 提供

矢嘯大東가校學進明

各種史實들어確證

光武十年(1906)內部許可

文理大 敎授 李 門 敎授 韓 沽 劤 敎授 朴 承 植 敎授 金 越 海 敎授 李 能 和 敎授 李 能 和 敎授 李 能 和

富士山登攀記 (上)

金知見

27日 부터온날씨! 東京驛 후지(富士) 廻行「로카르」를 맨 훈」에는 「록작크」를 老少男女로 超滿員이었다。車中에선 中年 정도였다。 層男女敎靑者들과 자리를 같이했다。話題는 되었다。 진다이모지(神代文字 우리글)와 傳來에서、佛敎에까지 及되어 뒤진 祖의德으로 어깨를 우쭐 해봤다。오후2時 富士驛에 도착했다。 예정대로 驛前에선 一行을 만났다。 (小笠原元隆、東京大石碩士를란 學友)와 스가와 (栖川 大谷大學에서 「피 다。車를타고 富士驛에 내렸다。 빠스案內所「스피컨」에 선 친절한 案內말이 흘 登山로는 마련했지만 우 러나온다。 (淺間神社廣場) 「여기서 新五合 (2천3백60m)까지 빠 스를 運行하고있읍니다。 定期이외에도 臨時로 發할뿐만아니라 座席이確 保되어있어여러분의 好評을 넘리받고있읍니다。

富士山을 오르자는 말 이 오고갔건은 오래 된 다。아쉬운 放學期間까지 「아르바이트」로 보내야 하는 나에겐 벅찬 일이 었다。日本에 몇년간있으 면서 富士山도 못올랐다 고! 그러던려에 몇몇사 람끼리 約束이되었다。7 月27日오후3時 富士驛(東海道線)에서 모이기로 한것이다。그러나 모이기로 富士驛에 내렸다。 빠스案內所「스피컨」에 登山로는 마련했지만 우 울할수밖에 없었다。밤마 다 日氣豫報에 귀를 기 우린 25日 정도로 초조했다。 소리는 유난히 밝았다。 특 27·28日은 쾌청이 되겠다는 것이다。

山登夜間의 스릴속

銀河이루고 列行의 電池

暴陽에 웃는 초겨울

2백50圓이고、鐵印을 누르면 20圓을 더받는다。 비싸지만 하나씩 고무기로했다。날씨를 겨정했더니 店員은 이정도의 얇은 구름은 곧 晴明해질 징조라고 말한다。말 그대로 날씨는 밝아지기 시작했다。

富士宮口에서 오후1시 빠스를 탔다。下山하는 때 스릴 만점(霧)속을 헤치고달 렸다。 빠스는 몇차례지나치더니 安全地帶와 灌木地帶를지나 두時間後에 新五合에 닿았다。市內에선 아스팔트를 녹히는 더위인데도 이곳은 초겨울이 다。 유계소에선 겨울옷을 을 갈아입는다。 練備가끝 난 이들은 本格的登山이 시작된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손과 손엔 電池가들 려있다。銀河水를찾는 반 디불의 行列이라고나 할까。 밝은 하늘엔 별들이 유난히 빛난다。

夜間登山의 스릴과 기쁨은 이런데 있는것 같다。 고요하기 이를데없는 山。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미끄러지는소리! 이런 평화의적막 을 깨는 것은 오직 나 一行뿐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富士山 麓의 銀河를 이루고있다。 五合、新五合、六合、六、五合、新七合、縣營山小屋、七合등의 中間마다의휴 식소를 지나 七、五合(三千三百m)에 도착한것은 세월二時頃이었다。거센 바람이 온山을 뒤흔든다。 숨이 매질정도다。 바람은 모래를 몰아 부치기도 했다。 빨은따 접고、추워는 몸을 자꾸만 떨게한다。 음식으로 맥불 체웠지만 별수 가없다。 一行들도 昨年보다 훨씬 춥다고 야단이다。 겨울內衣를 충분히 입었던 나도 판초까지 껴입고 수건으로목을 싸맸다。 추위와 졸음때문에 이러럼 심한몬 저음이었다。

一行중에서 누군가 쉬어가자고 提案했다。 왜 쉬잔느냐고 물었더니 온 더 춥다는 것이다。 日出時刻도 멀었고、頂上 없을것이라는 것이다。 「록세크」에 기대어한 숨자기로 했다。 母國의 漂突생각이간절해진다。

잠이 올리가없었다。 灌木地帶와 草原地帶를 훨씬 지난 地表地帶(不毛地、鎔岩砂土層)인지라바람은 세차기만 했다。 饑餓에 警惕心이라고、 「록세크」에 힘을주고 坐禪을 시도했다。如來의 雪山修道相을 상상 하고 있어 태樂道의 해 보다。(筆者·駒澤大學院在學中·同門)

民警親善의方案

法秩序守護者의使命感切實

優秀警察官育成策 索摸

警察은 法秩序의 守護者이며、自由의 奉仕者의 使命을다할때 民衆은 警察을 존경하여 協助를 아끼지않고、또한 優秀한者가 警察에 投身하여 榮光된 마음으로 生涯를 바칠때 警察의 質的向上도 기대할수있다。

民警親善의 方案 求에 即應할수있는 警察은、民衆은 警察의 고충을 理解하여 協助하고 警察은、民衆의 嚴格한 規律과 高度의 奉仕觀念이 몸에 철도록한다。

1、敎育·訓練및 同僚의 模範으로서 民衆의 要 能力과 敎養을 具備토록한다。

2、民衆의 警察에 對한 認識을 깊이하고 警察의 職務를 理解하고 協助하고 警察의 嚴格한 規律과 高度의 奉仕觀念이 몸에 철도록한다。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社會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警察官의 자질함양을위한 敎育을 교육에 힘쓰고있는 警察專門學校에서는 優秀警察의 育成方案을 摸索하고자난 9월28일 본교경찰행정학회의 다음과같은 論題로 세미나를 가졌다。①民警親善의 方案②少年犯罪防止策③人權擁護의 現實方案④支·派出所의 民衆處遇⑤防諜思想의 鼓吹策。鄭雨湜경전교장의 초청으로 참여한본교생40여명은治安局美首席顧問官 케프린氏및 경찰실무자들과매우 유익한시간을가졌는데 同세미나의요지는다음과 같다。<L>

警察行政學세미나要旨

1、警察官의 人權擁護의 實現方案

警察官이 人權을옹호함에 必要도없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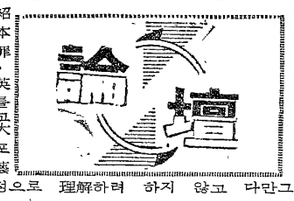
즉 一般個人에 對한 搜査 偵報 警備等의 활동은 人權을 유린한것등도 오랜전의일단도아닐것이다。 사실 一般人에게까지 욱지거리를 被疑者나 혐의자는勿論 또한 人權을 유린한것이다。 지금은 이런일이 없도록 限定된 時間外의 取調가 警察의 精神上 絶對禁止하며 더욱 人權을유린하게 故로 이의 방지를 爲해 警察官이 于先 法을 遵守하고 警察各部門에있어서 人權의 尊重이 警察人格의 根本이 되는것이다。 警察官의 人權擁護 및 人權의 保護는 警察의 業務의 必要上 不可缺한 要件이다。 警察官의 責任은 重大하고 그 修行上 더불어 자꾸 밀리는 犯罪의 解決을 終結하고

美와 眞理의 領域

「애드가·앨런·포우」論 <上>

具永範

◇…〃애드가·애르런포우〃란 이름은 누구나기…◇
◇…억하고 있다。그의 短篇小說의 번역도여러…◇
◇…권 나와 있다。그러나〃포우〃에 대한 一…◇
◇…般의 認識은 지극히 희박해서 대개는 그…◇
◇…를 통속 探偵小說家로 알고 있는 형편이…◇
◇…다。이점에 대해서는〃포우〃를 먼저우리에…◇
◇…介紹 人들…◇
◇…日本 가크…◇
◇…의罪 一部…◇
◇…다。 文學…◇
◇…英 除外…◇
◇…者를 그들…◇
◇…하고大 部分…◇
◇…의 우〃…◇
◇…〃포 術을…◇
◇…藝 ◇
◇…진정으로 理解하려 하지 않고 다만그의小…◇
◇…說에 나타나는 奇怪한 事件에만 관심을두…◇
◇…어 그의 探偵的 手法을 모방하는데만 몰…◇
◇…두웠었다。우리는 그가 佛蘭西文學에 끼친…◇
◇…영향을 알고 있다。그것이 다시 英文學에…◇
◇…재수입되므로써 아메리카사람들도 결국〃포…◇
◇…우〃를 재평가하게 된것이다。 ……◇



詩人의 위대성은 구체적인 世界라 하지않아도 人間의 道德的 情緒的 本性의 構造에 들어박혀있나 ㅋ는것에 의하여 觀測된다 — 神話的 想象力의 날개를 펼친「애드가앨런포오」의文學活動은 詩·評論·短篇小說의 3分野에 걸쳐있다。「詩는 律動的인 美의創造라하여 그가 모색한 詩의 主題는 音樂的 抒情的 순수한 美意識의 世界였으며 검은두름이 덮힌듯한 비애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르는 암담한 공포의분위기 哀絶한 情調들을 은 그의藝術은 어두운 심연에서 헤어난 한가닥의閃光이었다。

「포우」는 1809년에 兩親을 배우로하여 보스톤에서 태어났다。그는 어려서 兩親을잃어「버지니아」의 수도「리치몬드」에있는 부유한 煙草商人이었든 숙부「존·알란」의 양자가되었다。그후「버지니아」大學에 입학하였으나 방종한生活、술과 도박이심해 많은 부채를 지게되자 숙부는그를 퇴학시켰다。후에「보스톤」으로 도망하여 E·A·Perry라는 익명으로 軍에 입대하였으나 發見되어 陸軍士官學校에 입교되었다。

834年「알란」氏가 사망하였을때 한푼의유산도 받지못해 거리의 보헤미안이되었으며 그의人生은 현난하고 어둡이 깔린 골짜기를 헤매이게되었다。

그러자 그는 한잡지의현상모집에 당선되여(Ms. Found in a Bottle)그에게 상금과、편집일을 보게되여 이때에 숙모와 그의 딸「버지니아」의 집에 동거하며 글을썼다。14歲도못되는 어린 從妹「버지니아」와 結婚하고現實이주는 절망속에서 항상 그를 일으켜 주는 꿈을동경하며 술과 아편에 깊이 빠져들었다。그러나 「버지니아」는 불우한 예술가의 아내가 되여 심한고초를 겪다가 24歲의 一期로 숨에 넘어 추위를 견디다가 사망하였다。 고양이를 무릎에 안고 추위를 견디는 젊은 夫人이 死亡하자 그의 유일한 재산인 운명의무에 유해를 싸서 언방에 맡겨버린후、2年가량 실한병과 술로세월을 보내다가 자기가 즐겨 마시던 그술로 無我境 상태로「발티모어」市의路上에서醉死하고 말았다。그때 그의나이 37歲인 1849년10월7일이었다。

그는 경험을 최소한도로 인정하고 그의 詩는 상상력의 영역에대해 환상적인 集團에 연결되어있다。現實의 부정을위한 製作이 詩며、詩는 배타적으로 어떨 수없이 생겨나 無意識에서 脫皮하여 詩人의 어떤 才能과 구조에서 마음의 分裂에 대학한것이었다。

「포우」는 批評의 분렬을 어서도 精神의 분렬을 知力、味覺、道德的感性의 세가지로분류했는데知力을노놀 차고道德的感性은진리와함께 순백한詩的 感性은진리와함께 시적행동을 시도했다。그리고 詩의 目的이 지상 인간에서 不在된 狀況을 명하고 마지막에 두렷한 결론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手法을 시도했다。이것은 그의詩作品 〃The Raven〃(까마귀)에서 이러한 의도를 실천하였고 그 創作過程과 기교를「制作의 哲理」(1846)에서 세밀히 分析했다。

「美人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시적인主題인 것이다。 小說의 주목적은 독자에게 感銘을 주는 것이다고 확신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情緒란「공포심」이라고 보았다。소재를 超自然的인 것에서 구하여 人間의 잠재의식을 탐구하였으며 삶과 死의 사이에있어 人間의感覺은 가장 예민해지며 人間의 異常한 心理狀態를예술의 수단으로사용하였다。

「포우」의 결작 作品은 것은 대개가 죽음을 다룬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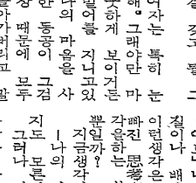
죽음이 사람의 현재를가지고 활보하는 the Masque of the Red Death이라던지죽음이다가오는그림자로해서우리에게공포와절망의위기에하는Shadow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等 신비와 경이 공포 기이한세계 그의 소재와 배경、비극적인 가득 채워져있어 독자와 함께 하나 하나 풀어가는 것이다。이것은「포우」가 小說構成에 있어 수을 한바있는 在釜東國大學 演劇科의 金山 鄕地人을 構成되어 地方演劇에새로운 불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친목을 圖謀코저 지난 5月에모여 그創立公演을 한바있는 요한 意味를 가지한다。

〈英文科〉

죽음과 美를 結合시켜

人間의 潛在意識을 探求

單一한 効果를 主張



눈화장의 기원을 알려다면 첫째눈물이 많아야하고 둘째키가 어느男子보다 작아야하고 셋째「히이로」를 신지않아야하며 넷째「스모킹」이상의 화장을하지않는것이다。그러고보니 또빠진게있다。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아요하는것은 어떤경우에 입을것인가? 그러면 우리나라여인들도 눈에검은철 이 쩌서도 않된다。

□金 榮 來□

요근래로 들어선 女子들의 눈화장이 부쩍늘었다。갖女學校들나온 애숙이로부터 사·오십줄에선 노장까지 눈화장에 대단한솜씨를 부리고있다。

「레인·보우」라 하는걸 칠하면 간단히 쌍가풀을만들기도하고 미장원에가면진눈섭을손쉽게붙인다고한다。 또한 대개의 女子들은 푸르딩딩한「아이·샤도우」를 사용하고있다。이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기위한 一面일것이다。

우리는 많은努力을했음에도불구하고 소기의성과를얻지못할때가있다。아니역효과를낼때가있다。

눈화장이 그一例가 아닐런지…

나는 좋지않은 눈화장을 해야만윤곽이 잘히는「어」。

『얘, 그런여자가 어딧어。』

『있어。있구말구。있다가 ××다방으로 나오기로했으니까 그때 봐。그렇다구 옆자리에 앉아 웃섣수설 하지말라구 먼발치로만 보란말야。』

『그분들이 아침나에、창경원을 갔다왔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부슨일? 허긴 무슨 일이 있었읍니다만 글쎄、나로서는 섭렵할수가 없겠는데요』

나는 그제야 저런모양으로 어울릴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창경원을가서 서로들 화해를 했군요』

『화해요?』

그는 무슨말이 그러는지 뜻을 짓는다。

『화해하니요?』

나는 몇번인가 내가 궁금해하던것을 물었으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모래 저노인들이 또 창경원을가니 같이가는 제안을 겨우 들었을뿐이다。

다음 다음날 우리는 창경원을갔다。

『자잘 다방인데요。』

『이거 큰 실수했군。』

청년은 바삐 밖으로 나갔다。서 좋아내길 잘했다 싶었다。

돌아진 녀석은 내가 되려 당할 것이니까。오십대 사나이들에게로 자리를 옮겼다。

『요새 신문은 읽을만도 한드군요。』

『그야 곧 시국에 변혁이 올 충화지。』

『젊은 사람들 분발해야겠어。』 반백의 사나이 뒤로 의젓이 앉으며말했다。나는 문득 비위가거슬리고 관자노리가 흔들거림는 것 느꼈다。

나는 이날 웬만큼은 적 당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책상에 머리를대고 자고 있었다。옷을바꿔입자니까 녀석은 속옷던고 개를 지그시 들고 뛰를 아본다。나를 발견하고선녀석은 금시포정이굳어진다。

『이자식아 왜 사람을 모면 삶아논 시금치모양 눈깔이 그모양야? 넌 언제 『별신행셀 면할래?』

금방 손이 올라가는 심 사를 지레 언놀랐다。녀석은 아예 내앞에 꿇앉아 용한 걸이 아닐수없다。 흐트진머리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쓸어모으며 가볍게 콧고 나무기둥들이 아취를 이루는 자연의 조화—。

스內에서 제일 맑에는조 겨야 했다。벌써 다달취 구두가 맞지않아 낮은굽 이 되여 추위를 탐아버린 탓 이었다。그러나 진짝온할수 고 둘째키가 어느男子보다 이옥고 트이여 오늘 녹녹하는 門에 女人 손끝이 온갖 떤다。 모습으로 뚜두는 소리도 없이 사람하는 네네 눈길에 빛이 가득찬 바다가 깃든다。

「발이 뿌리는 한줄의 꿈에。」

〈法學科〉

밤의 밑바닥

□金 鐘 鉉□

발역 밑바닥에서.
은밀한 달빛은
돌근자리에서 밤새워
빛나고 빛나는
네눈빛은
별빛에 싸여 어둠을사르고
있다。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는
속삭임은
깊은 生命의 씨앗
하나 하나 나뭇잎에도
네 사랑을 받고 흔들린다。

별빛 속으로
거리에 바람을 몰아가고
있다。
이윽고 트이여 오늘
하나의 門에 女人
손끝이 떤다。 모습으로
문두는 소리도 없이
사랑하는 네네 눈길에
가득찬 바다가 깃든다。

〈法學科〉

演公間三日猛演習 釜山에서 在釜東演習中

演作 金興雨脚色의「座席없는 極樂列車」와 李根三作「거룩한 職業」을 韓洙詰이 演出한다。

公演日字는 11月5日부터3日間 釜山日報四層 釜日 프레스 홀〈海東中 演하며 海等學校와 釜山大學 그리고 高等學校와 釜山大學 그리고 真亞大學의 초청公演도 있게 校 演劇同人會에서는 제二回 公演準備에 분망하고 있다。

이번의 레파토리는 吳永 ▲總指揮▲吳國根 ▲企劃▲金興雨 ▲演出▲韓洙詰▲舞監▲裵孝錫 ▲美術▲民村▲照明▲楯英出 ▲効果▲張慶詰 ▲衣裳▲林玉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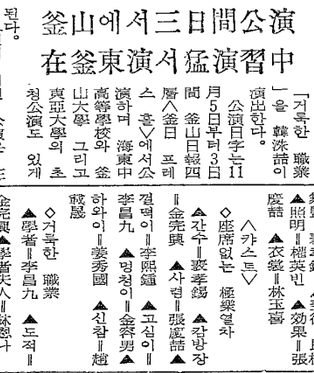
◇카스트〉 極樂列車

◇座席없는 極樂列車

▲社主▲裵孝錫 ▲작곡장▲金宪興 ▲사령▲張慶詰 ▲고수▲李昌九 ▲명청이▲金齊男 ▲결핵이▲李昭鎭 ▲신랑▲趙하와이▲姜秀國 ▲신랑▲趙 ▲거룩한 職業 ▲學者▲李昌九 ▲도적▲金宪興 ▲學者天人▲林慰나 〈사진은猛演習하는會員들〉

이번에 參加하는 스탠과 캬스트들은 보면다음과같다。

〈스 탠〉



메아리

○…人工衛星 나 일상생활을 즉、종교적 신앙생활이 수 없기 때문이다。태 어날때 세례나、영세를 받고 교육되며 교회에가 나 그리면서 자라 몸에 배인 것이다。

○… 요즈음은 미국 청소년들에게도 교회가크 게 「아멘」하지 않는다고 한다。교회에는 늙은이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한다 그래서 苦心한 교 화당국자들은 神聖한 교당에 교당에오락 시설을 차려놓았다。 이정도는 괜찮다 닭구대들 닭구대들 탁구대등 이정도는 괜찮다。

化粧 遊覽

○…人工衛星 게임을벌리고있어서소 美·蘇간에서소 한편쾌찬지만소 련이달에 먼저 도착하면 큰일이라는 먼저 달나라에가면즉시로牧師(宣敎師)와演藝人을第1番으로 보내겠지만、소련의 경우에는 케·케·우를先發隊로 먼저 보내겠다는 애기다。 듣고 보니그럴듯한 애기다。「프로테스탄트」의기치를높이 들고「메이·우라 워」號를타고新天地美國으로건너가신양의자유를 마음껏 謳歌하면 그들이아 고요한 香堂생활은 먼지 그들은 전쟁에 휩쓸리는 전쟁중인 한국에 참으로 수많은 구호물자와 수많은 박、염색소만 올려나을 정에에 酵素들의 노래와 장구소리며 나팔소리가떠 나지않는다。 休日이면트럭 그 배경으로한 美國人들 을 기독교적 가정에 태 어나 聖神生活을 하기때 문에 한국인처럼 일상생 활과 그렇게 격리감을갖 지 않고 있다。

兄弟

弘 啓 李

寫眞室

構內

◎ 西獨 Agfa Color
◎ 最高級 人像寫眞
◎ 各種 紀念寫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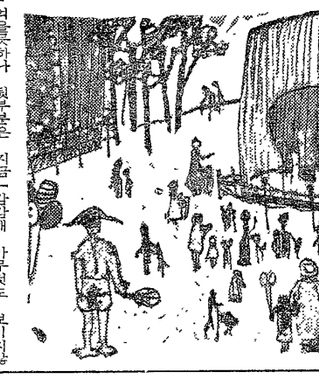
構內電話 336

山上嘆

〈創作〉 〈3〉

〈삶의 한줄거인양 추겨이 바르거기 알에놓여있다〉

—앙드레·말로—



宣 元 彬
安 鄕 畵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창경원 갔은데 자주가 섭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 웃으며 『몸 영웅한 짐을입니다 만대답을 해주시요』

나는 그의 춤 식작해진 얼굴에 질려

『들세요 자주는 못갑니다만 일년에 두어번 짐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물으시죠?』

그는 내말에 아무대답이없이 눈을 두어번 껌벅거리더니 시선을 또 샨위주고 있었다。

산위에는 여전히 전과는 다르게 모두들 어울리었었다。 나는 그러나고 웃으며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부슨일? 허긴 무슨 일이 있었읍니다만 글쎄、나로서는 섭렵할수가 없겠는데요』

나는 그제야 저런모양으로 어울릴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창경원을가서 서로들 화해를 했군요』

『화해요?』

그는 무슨말이 그러는지 뜻을 짓는다。

『화해하니요?』

나는 몇번인가 내가 궁금해하던것을 물었으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모래 저노인들이 또 창경원을가니 같이가는 제안을 겨우 들었을뿐이다。

다음 다음날 우리는 창경원을갔다。

『자잘 다방인데요。』

『이거 큰 실수했군。』

청년은 바삐 밖으로 나갔다。서 좋아내길 잘했다 싶었다。

돌아진 녀석은 내가 되려 당할 것이니까。오십대 사나이들에게로 자리를 옮겼다。

『요새 신문은 읽을만도 한드군요。』

『그야 곧 시국에 변혁이 올 충화지。』

『젊은 사람들 분발해야겠어。』 반백의 사나이 뒤로 의젓이 앉으며말했다。나는 문득 비위가거슬리고 관자노리가 흔들거림는 것 느꼈다。

나는 이날 웬만큼은 적 당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책상에 머리를대고 자고 있었다。옷을바꿔입자니까 녀석은 속옷던고 개를 지그시 들고 뛰를 아본다。나를 발견하고선녀석은 금시포정이굳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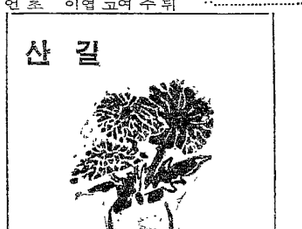
『이자식아 왜 사람을 모면 삶아논 시금치모양 눈깔이 그모양야? 넌 언제 『별신행셀 면할래?』

금방 손이 올라가는 심 사를 지레 언놀랐다。녀석은 아예 내앞에 꿇앉아 용한 걸이 아닐수없다。 흐트진머리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쓸어모으며 가볍게 콧고 나무기둥들이 아취를 이루는 자연의 조화—。

푸른벤치

女學生 4枚限 投稿 매주 마감 환영 月曜日

산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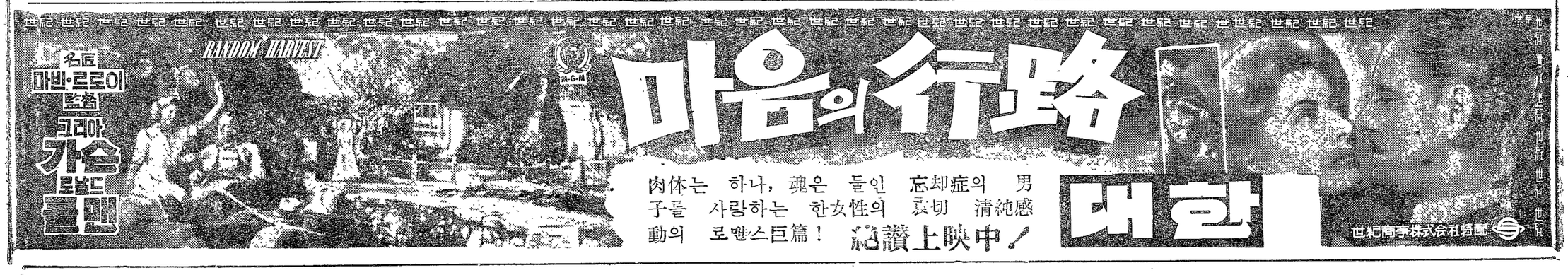


金 素 影

紛失廣告

마음의 行路

肉体는 하나, 魂은 둘인 忘却症의 男子를 사랑하는 한女性의 哀切 清純感動의 로맨스巨篇!

絶讚上映中!

대한